

제23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해운대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 7월 30일 (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 1면
2.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 1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서정학

(13시 31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

## 2 (제23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 ○위원장 서정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반갑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제235회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교육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 ○위원장 서정학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 검토요구되었던 온천 수목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 ○위원장 서정학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경제진흥과장 변수영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중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1차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 중 생각나시는 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간사님.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의 삭감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공단의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일단 현재 관광시설의 사업이 주관이 돼서 관리하는 부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앞으로 해양 관광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지금도 확대의 필요성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 시일 내에 블루라인파크 사업도 청사포 쪽으로 조성될 것이고, 청사포전망대라든지 해운대 광장에 음악분수도 조성되었고... 우리 해운대에 전체적으로 해서 관광시설의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돼 왔고 앞으로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기존적으로 양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것하고 수영강 나루공원을 관리하는 그 인력만으로도 급급해서 체계적으로 이 관광시설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우리 해운대의 관광 인프라, 또는 세계적인 관광 명품으로서의 방향성을 본다면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4년 이상 이후에 이런 지방 공기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공단 설립으로 인해서 축소되는 부서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건대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공기업이 만들어진다면 그쪽에 인력은 별도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리고 삭감 사유가 보면 준비 부족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요. 소관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준비 부족으로 그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7~8년 전에 그때도 우리 구 차원 자체적으로 공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관광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지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해운대 정도의 규모면 별도의 공단 설립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검토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정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해서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단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내부적으로 간간히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준비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광시설공단의 사업 영역은 어디까지 갈 것이며, 규모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는 지금 관광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제반 도시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준비를 같이 해나가야 될 시기이고, 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구의회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부산시에도 사전에 설득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가 좀 마련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구 단위의 지자체에서 다른 구도 이런 시설공단이 있는 곳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부산에는 기장군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이 2009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7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쪽 서울, 인천, 경기 쪽에 47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에는 우리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각 시도별로 기초자치단체 내에 30개 정도의 공기업,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해운대구 정도의 재정 규모, 인력의 규모나 부산시에서 가장 인력도 많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가 부산시 안에서도 공단 설립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시기는 도래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최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곤 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센터 씨름 연습장 조성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이상곤 위원

부산시 내에 7개 학교에 씨름부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이상곤 위원

그중에 해운대구에 4개... 지금까지 이 각 4개의 학교에서 연습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학교마다 씨름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곡중학교라든지 운송초등학교는 학교 내 지하에 씨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장이 사실 환기도 잘 안 되고 습기도 많고 해서 사실 아이들의 건강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곤 위원

그러면 현재 다른 지역에는 씨름장이 우리처럼 조성돼 있는 데는 아직 없네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맞습니다.

○이상곤 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씨름부 학생들의 대표적인 수상 실적을 알 수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반여고등학교하고 신곡중학교에서는 우승이라든지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곤 위원

전국대회에서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전국대회에서요.

○이상곤 위원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는 중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됐단 말이죠. 삭감 사유가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 사유가 사실 씨름인들이 타 종목에 비해서는 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인구도 많고 필요한 생활스포츠 종목이 많은데, 적은 규모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니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곤 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을 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한 유지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유지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전기라든지 수도, 그다음에 화장실 정도... 유지비용은 별로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곤 위원

아무래도 인기 종목인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쪽에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유 스포츠 아닙니까? 실제 인원은 적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컬링을 보면서 앞으로 비 인기 종목도 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구에서 앞으로 하나 정도는 추진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혹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결정되면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고맙습니다.

○이상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입니다. 저도 교육협력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상곤 위원님께서서는 인구가 적지만 앞으로 비인기 종목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씨름이 해운대구에 4개 클럽에 7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8,300만 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씨름뿐만 아니라 생활스포츠라든지 지금 해운대구에는 다양한 스포츠가 있는데 씨름에 2억 8,3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다른 종목에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활성화를 한단데 씨름이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2억 8,300만 원의 돈을 들였을 때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씨름장 하나 지었다고 해서 당장 씨름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름장이 있음으로 해서 또한 씨름 선수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씨름장이 있음으로 해서 한번 가보겠다는 마음도 들 수도 있고 해서... 활성화는 당장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온천 수욕장의 효과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을 겨울철에 적극 유치하겠다는, 기대효과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데 현재 해운대구에 족욕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과연 족욕장을 운영한 지 벌써 4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족욕장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이 과연 적극 유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해운대온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온천은 역사와 문화, 이런 자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때문에 해운대온천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온천협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 수도 전

국적으로는 3위 정도가 되는데, 연간 찾아오는 온천객 수는 연 12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열악함에도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 온천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작년에 온천관광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것이 부족하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해봤을 때 온천상징물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온천을 알리는 입간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남로에, 옛날에 해운대온천을 구남온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북이 형상을 한 족욕장도 제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족욕장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해운대구에 족욕장이 두 곳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보면 50대 중후반의 어르신들이 거의 앉아서 족욕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신발을 벗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다 보니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손을 담그면서도 온천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젊은 층으로 인해 SNS, 그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천의 수욕장 효능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온천 수욕장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야타미라는 곳에는 인구가 4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시장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조그마하게 수욕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또 스토리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그 옆에 있는 동자승 머리를 만지면 복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단순히 손만 씻고 가는 그런 수욕장이 아니라 십이지상[十二支像], 그러니까 띠별로 탕을 조그맣게 열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의 띠에 맞게 손을 씻으면서 온천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올 3월에 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혜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정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께서 지난번과 중복된 말씀이라도 다시 한 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우리 소관위에서 이미 전에 다 검토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중복되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기획관광행정 분과 위원회 것은 기획관광행정 분과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시간 내에 이렇게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소관 부서 위원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검토를 하면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좀 타당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할 부분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관광시설공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충분한 자료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겠고 기본적인 바탕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 속에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훈 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진흥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해운대구 상권 활성화 방안은 재설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떠나서 지금까지 이거를 해 가지고 성과를 낸 성과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성과가 없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 용역을 실시하는 거고요.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을 했고 애항길이라든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보통 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하면 기관에서 기한을 많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해서 어느 시장은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아보고 나면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가 시작될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가 하든 상인회에서 하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기훈 위원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닙니다.

○박기훈 위원

매년 한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박기훈 위원

아~ 처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그러니까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적이 있었고요. 해운대구 전체는 처음입니다.

○박기훈 위원

아~ 해운대구 전체는 처음이라고...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어느 시장은 어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어느 시장은 어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적기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기훈 위원

그거는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재송동의 시장만 봤을 때는 활성화 방안은 그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꼭 안 나서도 그 지역상인회에서 더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보다는 용역 전문회사가 상인회도 만나고 해서 그런 자료를 입수하게 되거든요.

○박기훈 위원

그거는 지역상인회가 있는데 뭐 하러...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거를 전체적으로 각 상인회마다 접촉을, 그러니까 용역사가 투입이 돼서 상인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고 그 시장 여건을 봐서 ‘아, 이쪽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기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의 시장을 보면 제가 더 잘 압니다.(웃음) 처음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저는 매년 해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닙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학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왜 2,000만 원이나 되는지, 약간의 언급은 돼 있는데, 꼭 2,000만 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에 2,0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2,000만 원이어야 되죠? 낮출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2,00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2,0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일단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한 용역들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원을 3명, 보조 연구원 1명, 그래서 주로 연구원 4명이 파트별로 조사하는 이 인건비가 총 1,6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부대비용이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8년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2,000만 원을 산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서정학

알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결국 인건비죠. 사람은 몇 명 쓰느냐, 전문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는데, 꼭 이게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선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수의계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해서 수의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그 선에 맞춘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

저보고요. 시설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직원 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확보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직급부터 시작해서 몇 분 정도가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그거는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충분히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서정학

용역하기 전에 예측한 것도 없어요? 용역을 하면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지금 2,000만 원 이거는 사전 용역이고요. 핵심 관건은 저희들이 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면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을 약간 감축해야 된다는 감축계획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공단의 사업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직의 규모가 일단 기준안이 마련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조직안이 사업의 규모, 영역, 거기에 따라서 조직의 필요성 여부가, 어느 정도의 조직이 되어야 할지가 판단이 되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며, 공무원 정원은 어떻게 감축해 나갈 것인지, 또 재정은 얼마나 충당될 것인지,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 검토를 올해 안 하면 어떤 불편함이 발생을 하죠?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다는 것밖에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일단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이렇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공단 설립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하는 기초자료 조사 용역이 이번에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용역은 본격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거를 주민들한테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별도로 한 번 더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씨름장 하는 데 본예산에 8,000만 원이 확보됐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위원장 서정학

씨름장을 조성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과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가요? 최소한 구의원하고는 의논이 된 바가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러면 8,0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조성하는 것을 시행하다가 지역주민과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추진을 하기 전에 다시 지역구의원님과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위원장 서정학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을 8,000만 원 확보했으면, 거기에 8,000만 원을 써서 조성을 한다는 것 가지고는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위원장 서정학

그것도 지금 안 됐는데 또 2억 원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본예산이 잘못됐는지 계산을 뭐가 잘못했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본예산에 8,000만 원인데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8,000만 원, 당초에는 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2억 8,000만 원은 거의 실내체육관 개념으로, 기왕 짓는 것을 더 잘 짓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예산 확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렇다면, 이 장소가 어디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장소는 행복체육공원 쪽에...

○위원장 서정학

예?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행복체육공원, 재송동 선하 부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런 것은 지역에 설명을 하고 여론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서정학

그렇죠. 그러면 계속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보면 주민들에게는 소음도 좀 덜 나고, 한진 CY 차벽도 있고, 그리고 반송과 해운대의 중간 정도도 돼서 접근성도 뛰어나고...

○위원장 서정학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씨름장보다는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위원장 서정학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방향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죠. 씨름장만 가지고 자꾸 하니깐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8,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추진을 하실래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반대를 한다면 설득도 필요하지만...

○위원장 서정학

그럴 것 같으면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그런데 그곳으로 한다고 보고 추진을...

○위원장 서정학

그러니까 한다고 보는 것은 집행부의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

○위원장 서정학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지역의 주민들과 구의원들과 의논을 한 번 더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관광문화과장님,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했죠?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공모사업 당초 1억 원을 신청하셨는데요. 공모 심사를 통해서 8,00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2,000만 원이 왜 삭감됐죠? 거기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당초 시에서 총예산 1억 원을 가지고 각 구·군에 공모 접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 원이 다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동래구에서 또 좀 가져가고 저희들이 한 6,5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까지 다 포함해서 1억 원을 확보했으면 구비도 좀 절감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렇게 하셔야 되지, 거기에서 삭감되는 건 아무 말도 없고 여기에 삭감되는 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가요?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사실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어쨌든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은 하지만 보통 돈을 내려줄 때는 저희들이 신청한 그런 부분까지 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비를 확보하게 되면 매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서정학**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놓으셨는데요. 이 맹점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부담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편성 시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렇게 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대로 반납합니까? 또 다른 뭐, 하실 게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아니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상부 부서에서 결정하고 선정을 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런데 공모사업을 왜 온천을 가지고 했죠? 지역 특성 때문에 그럴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온천 관광 활성화, 그 부분에 공모를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러면 지금 해운대에 온천과 관련해서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족욕장부터 시작해서...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예, 많습니다. 저희 구의 온천의 현황이 14개 정도가 됩니다. 일반 목욕탕 개념이 9개 정도가 되고, 호텔 쪽에 5개 정도 해서 14개가 되는데...

**○위원장 서정학**

그런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시 돈을 들여서 관리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서 공모를 해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시지...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산의 온천이라고 하면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습니다. 옛날에 신라 말 때 진성여왕이 천연두를 앓아서 해운대에 와서 질환이 나았다는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 해운대가 해운대해수욕장만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집중하다 보니까 겨울에 관광 상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운대 상권 활성화 방안에서 용역을 안 취도 자기들끼리 할 수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운대시장이라든지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도 크고, 재정 규모도 튼튼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에 필요한 부분을, 그러니까 제안서를 만들고 할 때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재정이 열악한 반여라든지 반송, 재송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때 어느 쪽에 참여를 할 건지 그런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

를 해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런 쪽이 나올 것 같다, 여기에 신청을 해보라.’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자료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반영동이나 반송이나 재송동이나 어떻게 하실 거죠? 용역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아, 이번 사업에 그런 지역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서정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저 역시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검토요구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삭감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문현신 위원

지난 담당 상임위 질문에서 제가 용역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여쭙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문현신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명확한 기준은 없되 용역비가 높아질수록 이 용역의 넓이나 깊이가 깊어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문현신 위원

그 끝에 수의계약 금액이 나오면서 제가 그렇게도 여쭙본 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이 2,000만 원, 그러니까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올린 두 건의 용역 금액이 각각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히 2,000만 원, 동일한 기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혹시 수의계약 선에서 맞추신 게 아니냐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예.

○문현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중에서 왜 이 용역 금액이 2,000만 원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수의계약 선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서두에 통상적으로 용역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입찰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수의계약의 범위가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간단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통상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그 금액을 넘는 것은 용역이 보다 더 폭이 깊거나 방대한 양일 경우에는 5,000만 원, 또 1억 원 이상 드는 용역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입찰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안에 간단한 용역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총당이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그 범위가 2,000만 원 안쪽으로 들 것 같은 경우에 수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보면 2,000만 원 안쪽으로 하되 그 안에서 부서에서 인건비는 얼마, 그 용역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수의계약으로 가느냐, 수의계약 이상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부서에서 그 용역의 깊이를 얼마만큼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 예산이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2,000만 원 안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용역비 산정 기준에 있어서 그냥 기존에 관습적으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각 사업에 맞게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과,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과장, 관광문화과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서정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복지정책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학 위원장님과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삭감 요구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신애입니다.

행복나눔과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삭감 요구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용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학 위원장님, 최은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2018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성길입니다.

보건정책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정학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정순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학교’ 해 가지고 예방교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해운대 학교 중에서 몇 군데 학교를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작년까지는 찾아가는 학교 교실을 안 했고, 올해 하반기에 처음 하려고 기획을 했는데, 한 5개 학교 정도를 찾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정순세 위원

할 계획인 것 같으면 학교는 주로 고등학교로 가십니까? 중학교로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그러니까 초·중·고에서 선정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그 중에서 적당한 학교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강사 선정은 주로 어떤 분들을 초빙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강사 풀(pool)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강사 풀 인력을 활용해서 상담하는 코너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을 초청해서 하고, 또 어떤 학교는 꼭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연극을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형태로 다섯 분을 똑같이 하지 않고 사전에 학교마다 요구사항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순세 위원

그러면 강사를 모시면 주로 강당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로 대부분 학교 강당에서 많이 합니다.

○정순세 위원

학교 강당에서 합니까? 인원 제한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예.

○정순세 위원

인원 제한 없이 그렇게 하시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일단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협력과에서도 한 번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하는데, 저희 부서에 아동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은 지역협의체가 있거든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가 있는데, 이때까지 회의를 2번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만 하다가 ‘그래도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행사 같은 거, 아이들한테 직접 상담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대책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 보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순세 위원

일단 제가 보니까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이라고 해서 제목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동부지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학생들도 말아 보니까 문제점이 많던데 그런...

특히나 학교폭력, 언어, 왕따,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것 위주로 하셔서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이상곤 위원

모두들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삭감이 있었는데 5년 전에도 한 번 했었죠? 그렇지? 그러면 5년 전에는 기초적인 수준이었고, 지금 5년 후에 하는 것은 어떤 수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인권이 5년 전에 할 때는 최근만큼 인권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위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인권이라는 게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분야도 사회·정치를 떠나서 건강권, 노동권, 환경권, 이런 많은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의 계획은 보편적인 대상을 중심으

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상곤 위원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기초적인 분야이고, 결원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이고 총론 수준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예.

○이상곤 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시 내의 16개 구·군 중에서 이러한 용역을 실시하는 데가 있나요? 매년...?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예.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이 지금 한 4,000만 원 넘게 용역비를 들이고 있고요. 우리 해운대구의 인권증진 조례가 부산에서는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우리 구를 표본으로 삼아서 지금 한 5개 구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개 구 자체가 전부 다 증진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또는 5년마다...

○이상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요?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예, 인권증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조례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곤 위원

아~ 명시되어 있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예.

○이상곤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한마디로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예.

○이상곤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여기처럼 자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한계가 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예, 자체적으로... 이게 제1회 때 기본계획인데 이 기본계획이 그냥 책상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해운대의 인권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건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여건에 따라서 설문지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도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설문지가 타당한지,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전략이라든가, 이행목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조금 변명 같지만 우리 직원이 지금 노인 업무라든지, 경로당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만에 하나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전담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서 지금 전담조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건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실행과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힘이 듭니다.

○이상곤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훈 위원, 말씀해 주시죠.

○박기훈 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입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이상곤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자치법규에 해운대구 인권증진 조례 사항이라고 해서 수립이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 강제규정을 안 할 시에는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법에 제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그 절차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구민의 신뢰도라든지... 또 저희들이 인권 조례를 만들 때는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부분들이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기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법적인 조치가 있냐고요? 벌금을 문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기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실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은 원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청하고 경찰서, 관찰보호소, 전문가, 그리고 저희 지자체가 다 합쳐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9~11월까지 3개월 동안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8월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박기훈 위원

그러니까 3개월 간 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예.

○박기훈 위원

3개월 간 몇 개의 학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5개 학교요.

○박기훈 위원

5개 학교 치고는 너무 금액이 과다책정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아니, 강사료도 1회 할 때 한 30만 원 정도... 한 분을 부를 때...

○박기훈 위원

그러면 5개 학교에 아예 그러지 말고, 교육청에 ‘5개 학교를 해 주세요.’ 해서 질의하면 안 됩니까? 아니, 50개도 아니고 3개월 동안 5개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질의를 해서 좀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구요.

○박기훈 위원

아니, 해운대구에서 하면 그래도 아예 돈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해운대구에 있는 학교를 다 하든지...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다 일괄 해서 다 하는 게 낫지, 왜 5개 학교만 꼭 꼬집어서 하는지 나는...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만약에 해운대구청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실시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사료되는 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고, 또 지자체도 같이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방금처럼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여러 군데를 나눠서 계속... 행정 업무가 학교폭력을 전담해서 계속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3번, 5번, 7번, 또 다음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10번, 계속 확대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훈 위원

저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청에 질의를 해서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예, 알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학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행복나눔과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인데, 왜 행복나눔과에서 인권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인 관련한 업무를 보는 분이 일부를 같이 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인권증진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소관 부서가 어딘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해야 하느냐, 행복나눔과나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201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욕구가 나오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소관 부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행복나눔과로 지정이 됐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권 부분이어서 저도 7월에 와서 이걸 보면서 ‘행복나눔과에서 이제는 이것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사실 좀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이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소관 부서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이라고 하면 시민, 그리고 국민,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민, 이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인권이지, 이제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일부 계층에 있어서 인권이 모든 인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건설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정밀점검 용역은 법정 사무죠?

**○건설과장 이상용**

법정 사무입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안 하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 되면...?

**○건설과장 이상용**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정 사무입니다.

**○최은영 위원**

정밀점검 용역은 법정 사무인데 이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금 검토사유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용**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을... 저희들이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1일 대가를 산정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못 드린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도 보수보강 공사비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은 점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시 본청의 재난안전실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생활하수과에 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로과에 있는 교량 같은 보수보강비라든지... 사실은 교부세,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용역이 시행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한 10억 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지금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했는데, 용역비가 삭감이 된다니까 의외라고 생각한 나머지 제가 아침에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사전을 설명을 못 드린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지금도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이게 4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개시설물 등’ 해서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5,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은영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용

예,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공공용역을 하기 때문에 1일 대가라든지, 품셈에 나와 있는 그 대가를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산출할 때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제시한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사항이라서 용역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까 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책정이라는... 삭감은 아니고, 검토에 올린 게 5,000만 원이 과다하다, 보통 대체적으로 용역이 정밀해서 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금액이 2,000만 원 선에서 보통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좀 많다 싶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페널티(penalty)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은 말씀을 안 하셨죠?

○건설과장 이상용

사실 그런 페널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것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

무이고...

○위원장 서정학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학

어쨌든 잘해야 될... 또한 시의 3개 과에서 교부금 정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이게 기초가 되어야만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장, 건설과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

○위원장 서정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위원장 서정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은영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통해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72페이지 관광시설공단 설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총 5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 부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학

최은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 8인

서정학 최은영 문현신 김상수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상	희
교	육	협	력	과	장	김	유	성
관	광	문	화	과	장	서	말	숙
경	제	진	흥	과	장	변	수	영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승	용
행	복	나	눔	과	장	김	신	애
건	설	과		장	이	상	용	
보	건	정	책	과	장	이	성	길

○의회직원

전	문	위	원	천	미	경
사	무	직	원	박	선	영
속	기		사	오	미	선
속	기		사	이	동	수